



서울반도체, 시스코 웹엑스로 세계 각국 임직원들을 넘어 협력사 · 고객과도 소통의 벽을 허물다!

서울반도체

- 안산, 대한민국

비즈니스 과제

- 전세계 4개의 현지 법인, 4개의 생산 거점, 40여개 해외 영업소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인프라 필수
- 협력사 · 고객과도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 필요
- 기존에 사용 중인 자체 개발 영상회의의 시스템에 대한 품질 및 확장성, 유지보수 문제 대두

시스코 솔루션

- 시스코 웹엑스 미팅(Cisco Webex Meetings)
- 시스코 텔레프레즌스 SX10

비즈니스 성과

- 세계 각국 임직원들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확장, 강화
- 협력사 · 고객과도 이동 없이 자유롭게 회의 진행 가능
- 협업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의 오류 및 불편사항 해소
- 스마트기기 통해서도 협업 가능, 업무 효율성 향상
- 수평적인 소통과 빠른 피드백을 선호하는 젊은 2030 직원 만족도 고취

서울반도체는 1992년 설립된 LED 전문기업으로,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지난 2013년 설립 20여년 만에 이미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도약적인 발전을 이뤘던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 중국, 베트남, 미국 등지에 생산거점을,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 해외 법인을, 그리고 주요 국가들에는 40여개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고품질의 LED를 세계시장 곳곳에 공급 중이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매출액 1조 1,104억원을 기록하며, 창사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LED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6% 높은 투자리수 매출 신장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은 981억원으로 전년보다 70.5% 증가했다.

서울반도체 역시 중국 제조업체들이 LED 부품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매출 9,393억원과 9,538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LED 부품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폰 · TV 등 전자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명 시장에 진출하면서 반전을 이끌어냈다.





“서울반도체의 IT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이번 프로젝트처럼 보람이 큰 적이 없었다. 시스코 웹엑스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다자간 회의는 물론 팀 협업을 최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업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시스코의 면모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반도체 홍명기 상무

서울반도체는 조명은 앞으로도 컬러 품질이 아니라 생체리듬에 맞는 건강한 빛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또한, IT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안전하고 편안한 빛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매년 새로운 기술과 제품 등 LED 신기술 확보를 위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1,000억여원을 연구개발(R&D)에 쏟아 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미국·유럽 등 전 세계 5개국에 위치한 서울반도체의 R&D센터는 실새 없이 돌아 간다.

전체 직원 2/3가 해외 근무, 고품질의 협업 솔루션 필수

서울반도체는 탄탄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제품들 덕분에 세계 LED시장을 주무대로 활동 중이다. 실제로 전체 직원의 2/3가 해외에서 근무 중이며, 매출의 약 80%는 해외시장에서 발생한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회사는 임원들은 물론 직원들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중시한다. 이에 일찍부터 협업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미 2010년에 자체 개발 방식의 화상회의를 도입해 약 3년 동안 사용하다가 2013년에는 구축형의 영상회의 솔루션을 전격 도입해 분사 및 해외 임직원들간 업무 회의 및 의사소통에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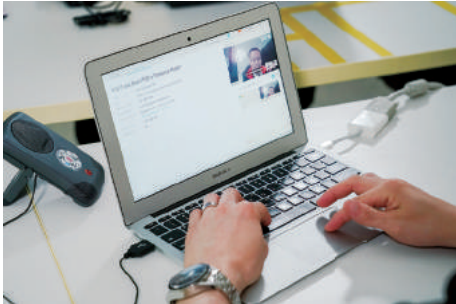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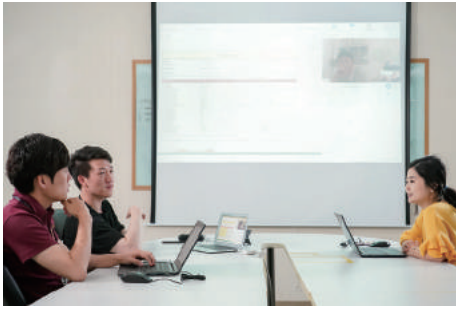
하지만 자체 개발 방식의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면 할수록 제약사항 역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활용도를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첫 번째로는 기존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정 정보가 별도로 있어야 했다. 이에 임직원들간 협업은 가능하나 필요에 따라 협력사, 고객과 유연하게 협업하는 데는 제약이 따랐다. 두 번째로는 모든 화상 장비 지원이 분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로는 구축형 화상회의 시스템은 초기 구축 시에도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요구됐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운영 인력 투입도 필요로 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새로운 협업 솔루션 검토에 나섰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품질 보장에도 경제적인 ‘시스코 웹엑스’로 낙점

서울반도체는 새로운 협업 솔루션을 검토하는 이유가 자체 개발 방식의 화상회의 솔루션의 활용에 한계가 명확했던 만큼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협업 솔루션을 다양하게 검토했고, 시스코 웹엑스로 최종 선정하기까지 세가지 측면의 큰 이유가 있었다.

첫째, 시스코 웹엑스는 전세계 웹컨퍼런스 시장 점유율 1위의 협업 솔루션으로, 포춘 500대 기업들 가운데 95%가 시스코 협업 솔루션을 사용할 정도로 업계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솔루션이란 점 때문이었다. 특히, 미주, 유럽 지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협업 솔루션을 경험해 본 직원들이 시스코 웹엑스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고 있는 터였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

둘째, 시스코 웹엑스는 최고 수준의 기능과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함께 검토한 솔루션 중 하나는 시스코 웹엑스에 준하는 기능을 지원받으려면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갔다. 한편, 나머지 한 솔루션은 기능과 품질은 시스코 웹엑스에 못 미치는데도 비용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셋째로 시스코 웹엑스는 처음 접하는 사용자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고, 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회의를 원하는 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었다. 실제로 누구나 메일이나 SMS 등으로 전달된 URL 클릭만으로 손쉽게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직원들이 크게 만족스러워 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기존의 협업 솔루션 교체 결정을 내리게 했던 제약사항들을 가장 강력하게 개선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시스코 웹엑스’ 라는 판단에서 같은 해 11월 시스코를 협업 파트너로 최종 확정했다.

시스코 웹엑스를 접한 서울반도체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다. 협업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매일 반복됐던 오류, 불편 사항, 불만 접수가 뚝 끊겼다. 새로운 협업 솔루션을 운영하기 시작하지 단 3주만의 일이었다.

수평적인 소통과 빠른 피드백을 선호하는 젊은 2030 직원 만족도 고취

서울반도체는 이번 시스코 웹엑스 도입 결정으로 다자간 회의는 물론 팀 협업을 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업 솔루션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반증이라도 하듯 직원들의 웹엑스 사용은 가히 폭발적이다. 기존 화상회의 단말 사용 기준을 근거로 구입한 라이선스 보다 2배 이상 높은 사용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영업과 제조 부문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정기 회의에서는 물론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 또한 사내 R&D 팀에 현장의 수요와 소리를 전하는 데는 물론 협력사, 고객들을 필요시 신속하게 회의에 초청,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다. 이에 고무된 서울반도체는 PSTN 음성 서비스를 추가해 핸드폰이나 자리전화로 웹엑스 미팅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보다 정교하고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제조 현장에는 텔레프레즌스 SX 10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반도체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리소스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수평적인 소통과 빠른 피드백을 선호하는 젊은 2030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고취에도 크게 기여했다. 서울반도체는 2030세대가 전체 직원의 80%를 넘는 젊은 기업인 만큼 시스코 웹엑스와 같은 협업 솔루션을 통해 빠르게 글로벌한 첨단 업무 환경을 수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독려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반도체의 홍명기 상무는 “서울반도체의 IT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이번 프로젝트 처럼 보람이 큰 적이 없었다. 시스코 웹엑스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다자간 회의는 물론 팀 협업을 최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업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시스코의 면모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스코 웹엑스 미팅 솔루션 도입에 그치지 않고 부가적인 협업 솔루션 추가 검토를 통해 지난해 사상 초유의



매출 신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협업 환경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반도체는 시스코의 협업 솔루션의 고부가가치, 사용 편의성, 확장성 등을 직접 확인한 만큼 웹엑스 룸키, 웹엑스 보드 등의 협업 장비도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임직원들이 마치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추가 정보

시스코 웹엑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webex.co.kr 을 참조하십시오.

서울반도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seoulsemicon.com/kr 을 참조하십시오.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 Cisco Systems Korea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5층 (우)06164 5F ASEM Tower, 517,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Tel 02.3429.8000 Fax 02.3453.0851 **제품 및 구매문의** 080.808.8082 **홈페이지** www.cisco.com/kr

twitter twitter.com/CiscoKR **facebook** facebook.com/ciscokorea **Blog** www.ciscokrblog.com **YouTube** Cisco Korea

©2018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